

# 올해의 영화 '기생충' · 감독 봉준호 "韓영화사 축복"

[연말결산] 영화전문가 20인에 물었다

최고의 사건 '기생충' 황금종려상

2019년은 '기생충' (감독 봉준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영화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생충'은 영화 전문가들이 선정한 2019년 최고의 영화에 선정됐고, 봉준호 감독 역시 압도적인 득표로 2019년 최고의 감독에 이름을 올렸다. 그뿐 아니라 2019년 영화계의 가장 큰 사건 역시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뉴스1은 2019년 연말을 맞아 영화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영화계를 빛낸 작품과 스타들을 조사했다.



영화 '별새' 중

랑을 받고 있는 것. 복미에서 영화 속 박소담이 부르는 '제시카송'이 유행하고, 많은 해외 유튜브들이 왔다투어 '기생충' 리뷰 영상을 올리는 현상 등이 이를 방증한다.

한 응답자는 '기생충'을 "한국 영화 100년사의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코믹하고 처절한 절규, 계급계와 실존주의의 철학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마학"이라고 표현했다.

그 밖에 "자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이야기를 세계적인 공감대로 보여줬다는 놀라움" "100년을 맞이한 한국 영화 역사의 기념비적 영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함께 국내 관객 천만명 돌파까지 작품성과 상업성에서 획기적인 성과"라는 평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의 화제작 및 흥행작이었던 '별새' '82년생 김지영' '극한직업' '스윙키즈' 등은 각각 1표를 받았다.

'별새'를 꼽은 관계자는 "이주 오랜만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저예산 영화가 전세계를 강타했다"라며 "한국의 저예산 영화 시장을 넘어 전세계 아트하우스 영화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수작이 아니었다 싶다"라고 밝혔다.

'82년생 김지영'을 지지한 응답자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극한직업'을 뽑은 전문가들은 "배우들의 하모니와 현장의 건강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돼 스코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스윙키즈'에게 표를 던진 관계자는 "재미와 메시지를 균형있게 다룬 이야기, 연출력, 배우들 연기, 음악, 미술 등 영화의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한단계 발전한 작품이라 생각한다"며 "관객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말의 한 장면 때문에 범작으로 치부되기에는 많이 아쉬운 작품이라 선정했다"고 전했다.

### ◇ 올해 최고의 감독, 봉준호 감독(16표)

'기생충'이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만큼, 봉준호 감독 역시 1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올해의 감독으로 뽑혔다.

한 응답자는 '기생충'에 대해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쳐 자랑스럽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봉준호식 영화를 통해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는 봉준호 감독이야말로 2019년 한해 가장 돋보이는 감독이 아닐까"라고 표현했다.

그 밖에 "인간의 본성과 심리, 계층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를 훌륭한 각본과 연출로 걸작을 탄생시켰다. 재치있는 대사들과 미장센 등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 앞으로 보여줄 다양한 이야기들이 궁금



강형철 감독

해졌다" "사회계급의 분절과 폐단, 대립의 주제를 유틸 있는 블랙코미디로 숨을 얹혀 재밌고 진중하게 제시해 한국을 뛰어넘어 전세계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스윙키즈'의 강형철 감독은 3표를 받아 올해 최고의 감독 2위에 랭크됐다. 강형철 감독을 뽑은 관계자는 "악자들을 보듬는 따뜻한 시선, 춤과 노래 연출에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이고 탁월한 연출력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 밖에 "히비극의 귀재" "칸영화제 수상을 한 봉준호 감독, 역대급 흥행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에 가리워졌지만 둘의 장점을 합쳐놓은 한국 영화계의 보물같은 감독" 등의 평가가 있었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 올해 장편 데뷔작 '미성년'을 선보인 김윤석 감독이 1표를 받고 3위를 차지했다. 김 감독을 선정한 관계자는 "배우로서 본인을 즐기고 여성들만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놀라웠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영화 '기생충'으로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왼쪽)과 배우 송강호.

### ◇ 올해 영화계 최고의 사건,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16표)

20인의 영화 전문가가 뽑은 올해 최고의 사건 역시 '기생충'의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이었다. 16명의 전문가가 '기생충' 황금종려상을 최고의 사건으로 언급했는데, 각각 "쟁쟁한 작품들 사이에서 쾌거" "한국 영화의 또 다른 르네상스를 기대케 했다"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 "황금종려상만이 아니라 복미 비평가상을 휩쓸고 있다는 점 역시 무척 놀랍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설명했다.

'별새'의 흥행, 5편의 천만 영화 탄생, 여성 서사 중심 영화의 약진, 양적 성장은 있지만 질적 성장이 없는 영화 산업에 대한 비판 등도 각각의 관계자들로부터 언급됐다.

'별새'의 흥행을 최고의 사건으로 언급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 독립영화계는 1만명 파티 시장이 아닌 3000명 관객이 1차 목표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이를 이끌어 올린 한편의 영화가 '별새'였다"며 "상업영화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화, 새로운 감독 발굴을 위한 이야기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이 있지만 질적 성장은 없는 영화 산업을 지적한 관계자는 "특출난 명작, 기대작이 없는 것에 비해 범작들이 대장 노릇을 한 해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생충'의 칸영화제 수상 성과를 제외하고 양적 성장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한국 영화계의 성장이라고 꼽을 만한 영화의 등장이 있었는지 조금 고민스럽다"고 생각을 알렸다.



### ◇ 올해 최고의 영화, '기생충' (16표)

'기생충'이 뉴스1 설문조사에서 총 16표를 받아 올해 최고의 영화로 뽑혔다. 지난 5월 개막한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내년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유력 국제영화상 후보 및 작품상·감독상 후보로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생충'의 인기는 '신드롬급'이다. 단순히 높은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흥미로운 내용으로 일반 관객들의 많은 사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2관	백두산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4관	백두산
5관	캣츠
6관	시동
7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신비아파트 극장판
8관	겨울왕국2, 캣츠, (더빙)눈의 여왕4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백두산, 천문·하늘에 묻는다
2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캣츠, 시동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4관	백두산
5관	시동
6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